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18. 08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매월 정해진 기간에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현안조사-국정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현안조사는 한국리서치 전문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하며, 개별적인 문의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통합니다.
- 국정지표는 해당 조사결과와 함께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박종선 수석부장

전화 | 02-3014-0085
e-mail | have21c@hrc.co.kr

기획조사

정한울 여론분석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국정지표

오승호 차장

전화 | 02-3014-0167
e-mail | shoh@hrc.co.kr

목 차

CONTENTS

주요 조사결과	4
1. 현안 조사	8
2. 국정 지표	17
3. 조사 개요	26



현안조사 : 올 여름 폭염

- 올 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39.6도를 기록(8월 1일), 1907년 기상관측 이래 111년 만에 가장 높았고, 강원도 홍천도 41도까지 치솟으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록인 1942년 8월1일 대구 40도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여름은 1994년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올해 폭염일수는 29.2일로, 1994년 기록 27.5일을 넘겨, 197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올 여름은 우리 국민들의 기억에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 올 여름 폭염의 심각성은 조사결과에서도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69%가 올 여름 폭염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체로 심각하다'는 인식을 합하면 98%로 모든 응답자가 올 여름 폭염을 심각한 재난 수준으로 느꼈습니다.
- 연일 지속된 폭염은 실제로 신체와 정신건강을 위협했습니다. 대다수 응답자가 수면장애 및 스트레스가 증가(84%)했으며, 쉽게 짜증나고 감정기복이 심해졌습니다(75%). 타인과 다툼, 마찰, 갈등이 심해졌다는 응답도 38%나 됐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직접적으로 두통, 어지러움, 탈진 등의 건강상문제를 겪었다는 점입니다.
- 폭염을 피하기 위해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대부분 응답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피하고 시원한 실내공간을 찾았으며(84%), 평소보다 외출/만남/회식을 줄였습니다(80%). 참거나 선풍기를 사용하기 보다는 에어컨을 주로 사용했으며(76%), 혹시나 외출을 하면 꼭 부채나 손선풍기를 휴대(49%)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집밥 대신 외식, 배달음식 이용이 늘었으며(54%), 가까운 거리도 버스/지하철보다 택시를 이용했다는 응답도 29%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전이나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도 12% 였습니다.
- 참을 수 없는 폭염에 가정에서의 에어컨 사용은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에어컨이 있는 가정에서는 하루 평균 에어컨을 약 9시간 동안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루 절반(12시간) 이상 에어컨을 사용했다는 응답자도 28%나 됐습니다.
- 늘어난 에어컨 사용량 만큼 전기요금 걱정도 매우 커졌습니다. 응답자의 88%가 전기요금 폭탄이 걱정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현안조사 : 올 여름 폭염

- 정부는 지난 7일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지정해 7~8월 두 달 동안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가구당 평균 19.8% 감면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이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49%, 도움이 되지 않을 것 50%로 반신반의했습니다.
- 역대급 폭염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나 여름철 한시라도 누진세를 완화하자는 청원이 속출했고 동의하는 청원자수도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 이를 반영하듯 조사 결과 역시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3단계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54%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누진제의 틀은 유지하되 등급별 요금 차이는 완화해야 한다 37%였으며, 현행 유지 입장은 6%로 매우 낮았습니다.
- 한편, 대다수 응답자는 향후(내년)에도 폭염이 올 여름과 비슷하거나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올 여름과 같은 폭염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64%, 올 여름보다 더욱 나빠질 것이다 27%, 올 여름보다는 나아질 것이다라는 응답은 7%였습니다.
- 더불어,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70%로 높았고, 올해 폭염이 심각한 건 맞지만 자연재난 지정에는 반대한다 26%로 낮았습니다. 정부의 전반적인 폭염 관련 대응에 대해서도 못하고 있다 53%, 잘하고 있다 41%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습니다.
- 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폭염 대응이 미흡했으며, 앞으로도 재난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거나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루 빨리 전기요금 누진제도도 손을 봐야 하고,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지정하여 정부가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올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당수가 노약자,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냉방복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폭염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을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국정지표 :

대통령 국정운영과 리더십평가, 정책 평가, 경제/안보인식

- 문재인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전월(68%) 대비 6%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6월부터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 지역별로는 서울,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지난달 대비 하락폭이 컸습니다.
- 리더십 평가에서도 6가지 항목(원칙과 소신, 소통, 민생 안정, 위기상황 대처, 통합 노력, 공직 인사) 모두 긍정적 평가가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민생 안정 부문은 지난 4월부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주요 10개 정책 각각에 대해 잘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대북 정책’의 긍정 평가가 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외교 정책’(65%), ‘보건 의료 정책’(56%), ‘사회 안전 대책’(53%), ‘환경 정책’(49%), ‘복지 및 분배 정책’(49%), ‘교육 정책’(38%), ‘주거 및 부동산 정책’(34%), ‘일자리 및 고용 정책’(31%), ‘저출산, 고령화 대책’(31%)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 4월 대비 환경 정책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줄어든 가운데, 일자리 및 고용 정책의 하락폭이 13%포인트(44% → 31%)로 가장 컸습니다.
- 경제인식지수는 -40으로 지난 달(-39) 대비 1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지역별로는 서울, 직업별로는 무직/퇴직/기타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올해 5월 이후 경제인식지수가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 국가안보 지수는 +24로 지난 달(+28) 대비 4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6월 이후 안보인식지수가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여론속의
여輿論論

CHAPTER



현안조사
올 여름 폭염

01

현안조사

1) 폭염의 심각성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에
덥내 평안하셨습니까?

올해 여름은 각종 기록을 낳았다. 지난 8월1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39.6도를 기록, 1907년 기상관측 이래 1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는 기존 1994년 7월24일 38.4도보다 1.2도나 높은 것이다. 강원도 홍천도 41도까지 치솟으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록인 1942년 8월1일 대구 40도를 경신했다.

올 여름철(6월 1일~8월 16일)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29.2일(평년 8.7일)로 197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고, 열대야일수는 15.7일(평년 4.4일)로 1994년(16.6일)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순위	평균기온	평균최고기온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일조시간
1위	'18년 25.5℃	'18년 30.7℃	'18년 29.2일	'94년 16.6일	'18년 611.3시간
2위	'94년 25.4℃	'94년 30.7℃	'94년 27.5일	'18년 15.7일	'73년 566.8시간
3위	'13년 25.3℃	'13년 29.9℃	'16년 16.4일	'13년 13.4일	'94년 564.6시간

- 폭염일수: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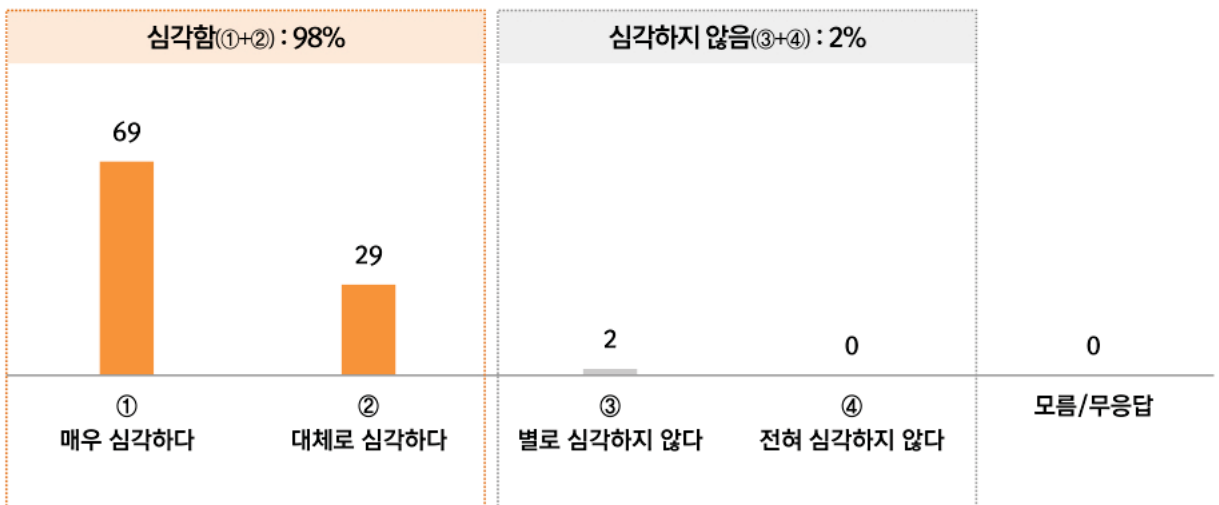
- 열대야일수: 밤(18:01~익일09:00)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

10명 중 7명
올 여름철 폭염
매우 심각하다

현재 거주 지역의 폭염 심각성에 대해 응답자의 69%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 대체로 심각하다는 인식을 합하면 98%로 모든 응답자가 올 여름 폭염을 심각하게 생각했다. 앞서 제시한 통계수치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연일 지속된 폭염을 심각한 재난 수준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Q 이번 여름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폭염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N=1,000, %)



01

현안조사

2) 폭염이 바꾼 일상

수면장애,
스트레스 84%

연일 지속된 폭염은 실제로 신체와 정신건강을 위협했다. 대다수 응답자가 수면장애 및 스트레스 증가(84%)했으며, 쉽게 짜증나고 감정기복이 심해졌다(75%). 타인과 다툼, 마찰, 갈등이 심해졌다는 응답도 38%나 됐다.

두통, 어지러움 56%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직접적으로 두통, 어지러움, 탈진 등 건강상 문제를 겪었다는 점이다.

Q 폭염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일상생활의 변화가 있었나요?

(N=1,000, %)



구분	사례수	수면장애 및 스트레스가 증가했다	쉽게 짜증나고 감정기복이 심해졌다	두통, 어지러움 등 건강상 문제를 겪었다	타인과 다툼, 마찰, 갈등이 심해졌다
전체	(1,000)	83.6	75.0	55.8	37.7
성별					
남자	(497)	84.4	73.8	49.1	42.8
여자	(503)	82.8	76.2	62.4	32.7
연령					
19-29세	(175)	86.3	81.7	60.2	43.2
30-39세	(173)	87.5	76.6	62.9	41.4
40-49세	(203)	82.2	69.6	55.8	37.5
50-59세	(201)	86.7	76.9	55.7	41.9
60세이상	(248)	77.6	72.0	47.9	28.0
월평균소득					
200만원미만	(149)	82.3	76.4	58.5	39.0
200-300만원	(222)	84.0	78.7	57.5	40.6
300-400만원	(205)	86.0	76.6	58.5	40.5
400-500만원	(158)	80.4	68.9	52.1	33.2
500-600만원	(101)	84.2	68.8	51.9	30.6
600-700만원	(63)	87.1	83.9	55.4	47.0
700만원이상	(102)	81.8	71.5	52.9	32.0

시원한 실내로 평소보다 외출 줄이고 에어컨 주로 사용

폭염을 피하기 위해 일상도 달라졌다. 대부분 응답자가 가급적 야외활동을 피하고 시원한 실내공간을 찾았으며(84%), 평소보다 외출/만남/회식을 줄였다(80%).

참거나 선풍기를 사용하기 보다는 에어컨을 주로 사용했으며(76%), 혹시나 외출을 하면 꼭 부채나 손선풍기를 휴대(49%)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전 피해도 12%

집밥대신 외식, 배달음식 이용이 늘었으며(54%), 가까운 거리도 버스/지하철보다 택시를 이용했다는 응답도 29%였다. 한편, 정전이나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도 12%였다.

Q 폭염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일상생활의 변화가 있었나요?

(N=1,000,%)



구분	사례수	시원한 실내공간 찾음	평소보다 외출/ 회식 줄임	에어컨을 주로 사용	외식/ 배달음식 이용 늘어남	부채/ 손선풍기 외출 시 휴대	버스, 지하철보다 택시 이용	정전으로 피해를 겪음
전체	(1,000)	84.1	79.6	75.6	54.3	49.4	29.0	12.4
성별								
남자	(497)	81.4	76.2	75.3	48.3	33.4	26.7	12.7
여자	(503)	86.7	82.9	75.9	60.2	65.2	31.4	12.0
연령								
19-29세	(175)	88.9	74.9	82.4	57.3	56.2	31.2	16.5
30-39세	(173)	88.1	80.8	84.6	67.0	55.6	37.4	13.5
40-49세	(203)	87.1	75.4	79.0	63.0	48.7	33.7	11.6
50-59세	(201)	81.9	82.3	69.3	52.5	51.6	26.9	9.4
60세이상	(248)	77.2	83.2	66.9	37.5	39.2	19.5	11.6
월평균소득								
200만원미만	(149)	80.0	82.5	64.4	45.0	47.7	24.4	10.0
200-300만원	(222)	84.8	84.9	76.8	55.3	56.6	33.3	11.6
300-400만원	(205)	86.3	79.2	75.1	53.0	49.0	25.2	16.3
400-500만원	(158)	79.1	76.8	75.1	56.7	42.0	28.0	10.5
500-600만원	(101)	87.2	73.6	84.1	59.2	50.8	25.2	11.0
600-700만원	(63)	87.1	76.1	78.8	57.6	51.4	32.3	13.1
700만원이상	(102)	86.5	77.1	80.9	57.5	46.1	37.4	13.3

01

현안조사

3) 전기요금과 누진제 개편

깨어있는 시간에는
에어컨 풀가동

하루 평균 에어컨
약 9시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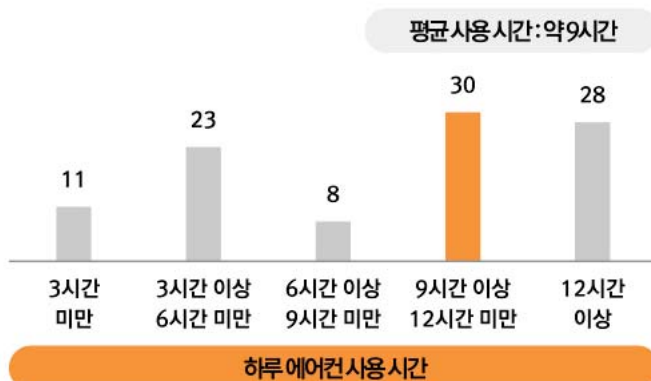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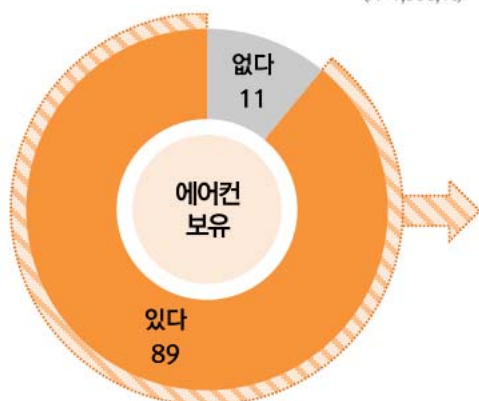
밤, 낮을 가리지 않는 잠을 수 없는 더위에 참거나 선풍기만으로는 버틸 수 없어 에어컨을 자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실제 어느 정도 사용했을까?

가정에 에어컨이 있다는 응답은 89%였고, 이들이 지난 1주일 동안 하루에 에어컨을 몇 시간 정도 사용했는지를 물어본 결과 전체 에어컨 사용시간 평균은 약 9시간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사용시간을 보면 7시간 미만 43%, 7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30%, 하루의 절반 이상인 12시간 이상 28%로 나타났다.

Q 현재 귀 댁에는 에어컨이 있습니까? (에어컨이 있다면) 지난 1주일 동안 귀댁에서는 하루에 에어컨을 몇 시간 정도 사용하셨습니다?

(N=1,000,%)

(N=8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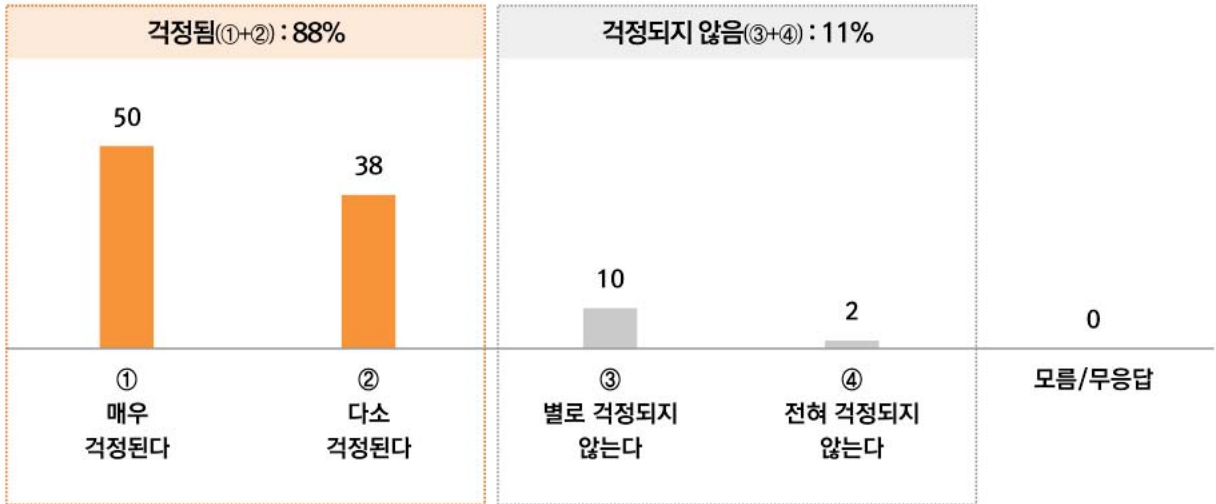
Base=가정 내 에어컨 보유자	사례수 (명)	3시간 미만	3시간~6시간 미만	6시간~9시간 미만	9시간~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계	평균 사용 시간(분)
전체	(893)	112	234	81	299	275	100.0	533.0
거주지역								
서울	(179)	9.3	23.5	7.1	32.5	27.6	100.0	548.0
인천/경기	(269)	9.9	21.1	8.9	30.0	30.1	100.0	561.5
대전/세종/충청	(90)	6.6	18.5	7.6	34.8	32.5	100.0	596.7
광주/전라	(91)	9.7	24.5	13.4	30.9	21.5	100.0	489.6
대구/경북	(87)	7.5	21.1	7.0	28.2	36.2	100.0	581.6
부산/울산/경남	(140)	18.5	31.3	5.8	23.5	20.9	100.0	449.6
강원/제주	(37)	25.9	23.4	5.7	29.7	15.1	100.0	405.6
가구원수								
1명	(79)	15.1	29.4	9.2	30.8	15.5	100.0	442.1
2명	(216)	12.4	32.7	6.9	23.4	24.6	100.0	497.5
3명	(240)	13.0	19.7	9.8	30.8	26.7	100.0	526.1
4명 이상	(358)	8.4	18.9	7.4	33.0	32.5	100.0	579.2
월평균소득								
200만원미만	(115)	15.8	27.9	10.5	27.2	18.5	100.0	464.1
200~300만원	(195)	14.4	23.4	4.8	32.1	25.3	100.0	508.2
300~400만원	(181)	9.4	24.6	8.2	28.4	29.3	100.0	543.5
400~500만원	(144)	9.6	20.7	7.9	29.8	32.1	100.0	561.5
500~600만원	(96)	8.5	16.4	11.3	34.7	29.0	100.0	563.9
600~700만원	(61)	6.6	23.4	3.2	36.3	30.5	100.0	594.9
700만원 이상	(100)	10.5	26.3	11.3	22.8	29.1	100.0	533.5

10명 중 9명 더위보다 전기요금이 더 겁난다

늘어난 에어컨 사용량 만큼 전기요금 걱정도 매우 커졌다. 응답자의 88%가 전기요금 폭탄이 걱정이라고 응답했으며, 걱정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로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Q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아져 전기요금 폭탄이 걱정되시나요?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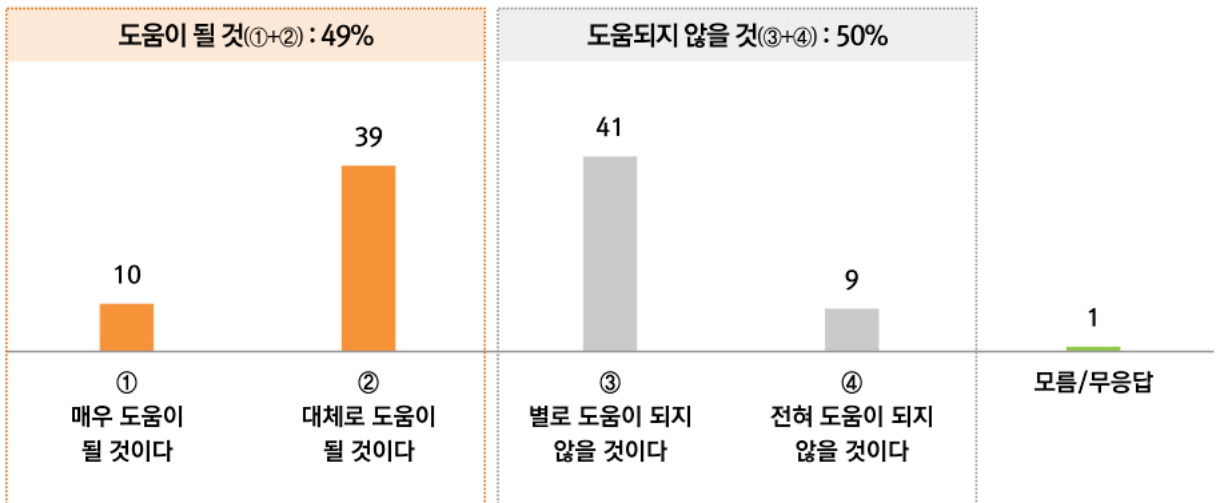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정말 도움될까?

정부는 지난 7월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지정해 7~8월 두 달 동안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가구당 평균 19.8% 감면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대책이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49%, 도움이 되지 않을 것 50%로 반신반의 했다.

Q 정부에서는 최근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7·8월 누진제 완화, 가구당 평균 19.5% 인하)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N=1,000, %)



10명 중 9명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 요구

당장 폐지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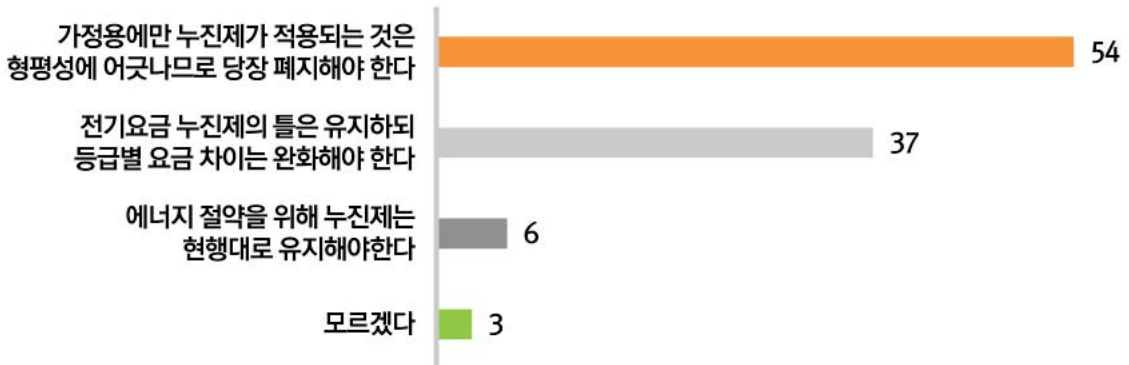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기를 많이 쓸수록 더 큰 폭으로 요금이 올라가는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일시 중단해 달라는 요구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고, 이에 대한 동의자도 늘었다. 이를 반영하듯 조사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3단계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가정용에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5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은 유지하되 등급별 요금 차이는 완화해야 한다 37%였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누진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6%로 매우 낮았다.

Q

현재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3단계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N=1,000, %)



01

현안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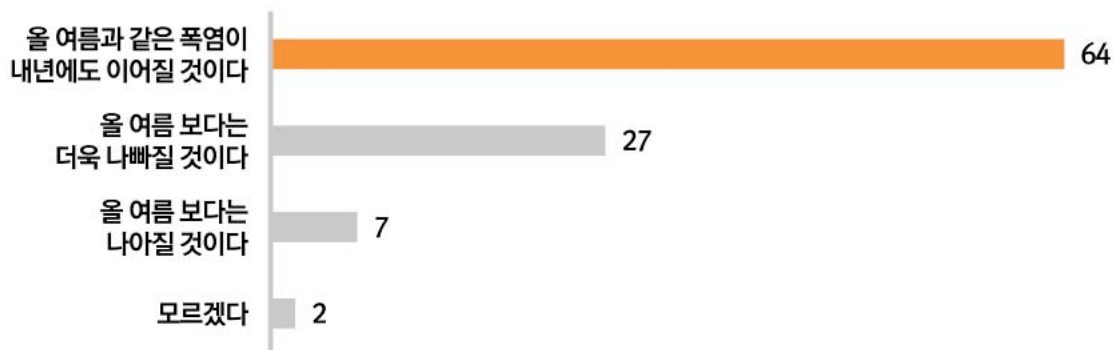
4) 향후 폭염 예측 및 대응

**내년 여름도
올해와 같은 폭염
이어질 것 64%**

폭염이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올 여름과 같은 폭염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64%, 올 여름보다 더욱 나빠질 것이다 27%, 올 여름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7%로 대다수의 국민은 올 여름과 비슷하거나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Q 폭염이 향후(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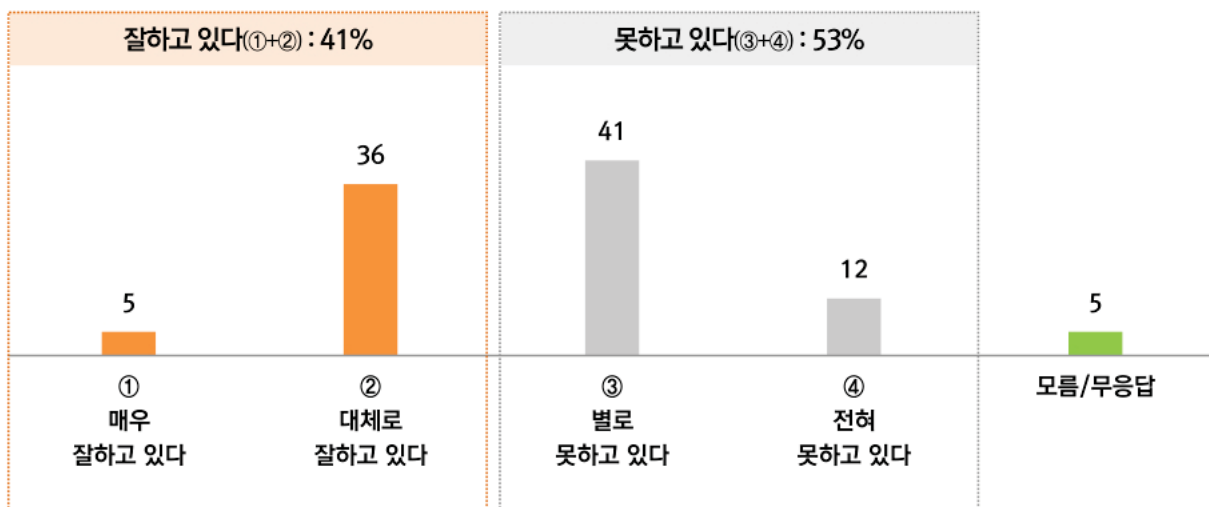


**정부 폭염 대응,
잘 못한다 53%**

정부의 전반적인 폭염 관련 대응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다 53%, 잘하고 있다 41%로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Q 정부의 폭염 관련 대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N=1,000, %)



10명 중 7명 폭염의 자연재난 지정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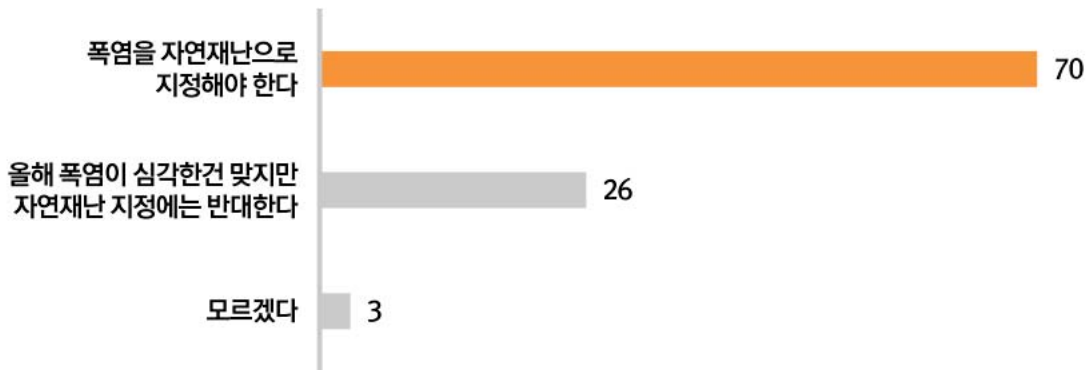
폭염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자연재난에 포함되지 않는다.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지난해 8월에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70%, 올해 폭염이 심각한 건 맞지만 자연재난 지정에는 반대한다 26%로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높게 나타났다.

Q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폭염도 태풍과 홍수처럼 자연재난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000, %)



담당자 박강서 차장

전화 | 02-3014-0081

e-mail | kspark@hrc.co.kr

여론 속의

여輿論論

CHAPTER

02

국정지표

02

국정지표

1)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
지난달 대비
6%p 하락

6월부터 하락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62%는 잘하고 있다고 한 반면, 33%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비율은 지난달 대비 6%포인트(68% → 62%) 하락하였다. 6월부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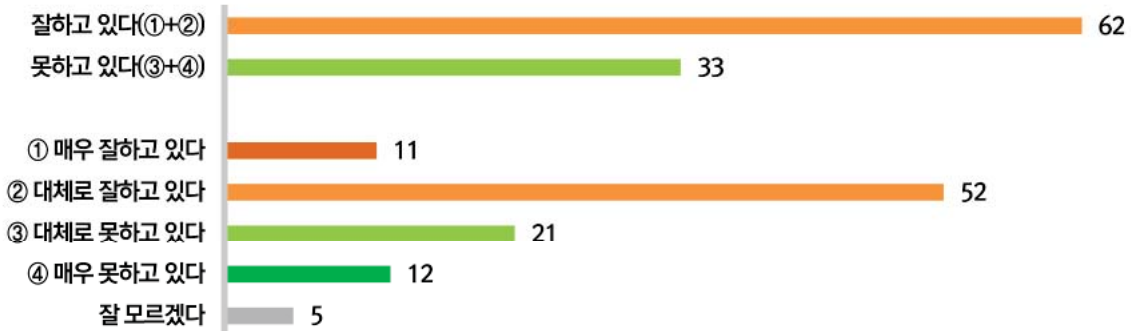
연령대별로는 20대 65%, 30대 68%, 40대 71%, 50대 64%, 60세 이상 48%이며, 60세 이상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지역별로는 서울 57%, 인천/경기 67%, 대전/세종/충청 56%, 광주/전라 84%, 대구/경북 50%, 부산/울산/경남 57%이며, 지난달 대비 서울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86%, 중도 55%, 보수 41%로 지난달 대비 중도층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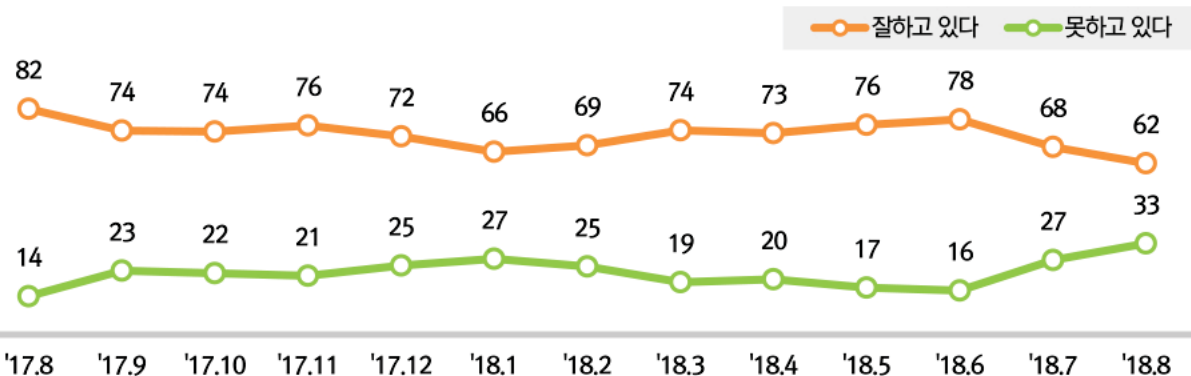
잘하고 있다 62%, 못하고 있다 33%

(N=1,000, %)



지난달 대비 6%포인트 하락

(N=1,000, %)



연령대, 거주지역, 이념성향별 국정운영 긍정평가 추이

지난달 대비 60세 이상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 %p)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전월 대비
전체	66	69	74	73	76	78	68	62	-6
19-29세	67	74	73	78	81	80	70	65	-5
30-39세	77	81	81	87	85	85	72	68	-4
40-49세	78	77	88	82	83	87	76	71	-5
50-59세	66	71	76	70	80	72	68	64	-4
60세 이상	48	47	58	56	59	70	55	48	-7

지난달 대비 서울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 %p)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전월 대비
전체	66	69	74	73	76	78	68	62	-6
서울	60	68	74	69	76	78	69	57	-12
인천/경기	68	71	76	77	79	79	69	67	-2
대전/세종/충청	72	66	73	73	74	74	67	56	-11
광주/전라	84	85	90	87	91	91	86	84	-2
대구/경북	60	62	59	60	62	69	50	50	0
부산/울산/경남	62	59	71	71	76	77	62	57	-5

지난달 대비 중도층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 %p)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전월 대비
전체	66	69	74	73	76	78	68	62	-6
진보	88	88	93	93	94	95	93	87	-6
중도	70	73	74	73	81	76	69	55	-14
보수	41	47	51	48	50	59	36	41	+5

02

국정지표
2) 대통령 리더십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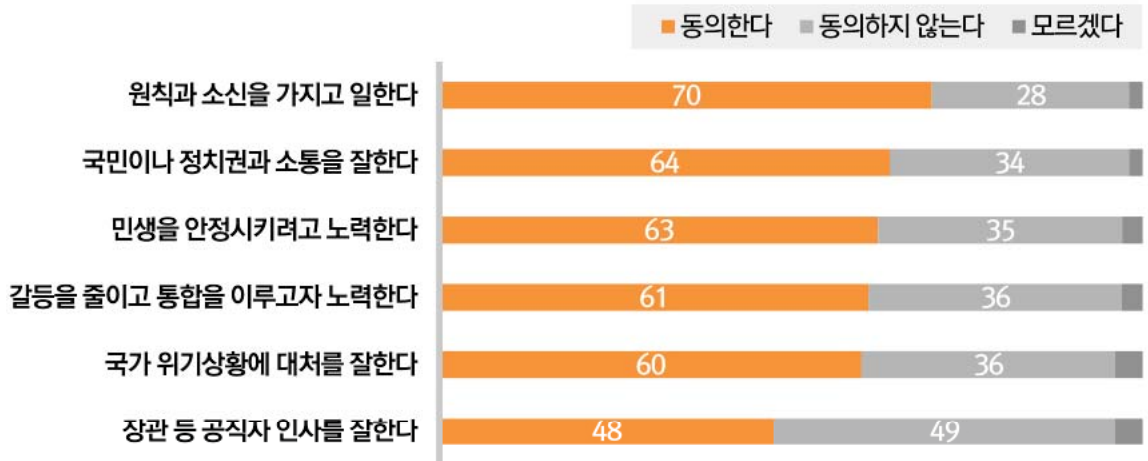
민생안정부분
전월 대비 소폭 하락
4월 이후 하락세 지속

대통령 리더십을 6가지 차원으로 각각 평가하게 한 결과, 원칙과 소신에 대한 긍정평가가 7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소통(64%), 민생 안정(63%), 통합 노력(61%), 위기상황대처(60%), 공직인사(47%) 순이었다.

리더십 차원별 평가 추이를 보면, 지난달 대비 모든 부문에서 긍정평가 비율이 소폭 하락하였다. 민생 안정 평가는 4월부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원칙과 소신에 대한 평가 가장 높고, 공직 인사 평가 가장 낮아

(N=1,000, %)



지난달 대비 모든 부문에서 긍정평가 비율 하락

(N=1,000, 동의한다%, %p)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전월 대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한다	72	72	78	74	78	81	75	70	-5
국민이나 정치권과 소통을 잘한다	69	68	72	71	72	74	67	64	-3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한다	73	69	71	73	71	69	66	63	-3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루고자 노력한다	62	62	66	68	67	68	64	61	-3
국가 위기상황에 대처를 잘한다	59	62	70	71	73	73	65	60	-5
장관 등 공직자 인사를 잘한다	52	51	57	51	55	59	52	48	-4

02

국정지표
3) 정책 평가

긍정평가기준으로

주요 10개 정책별로 실행에 대한 평가(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시하였다.

대북 정책이 가장 높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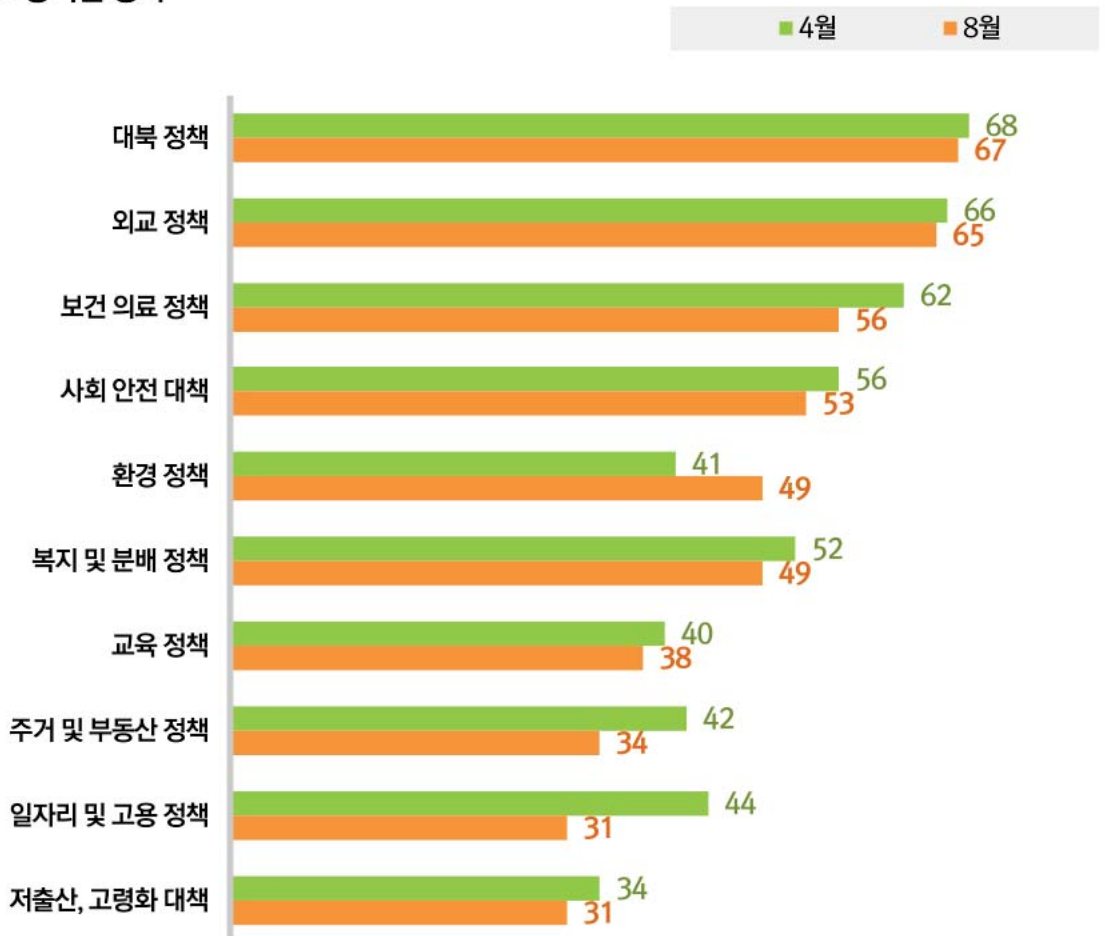
잘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정책은 '대북 정책'(67%)이었고, 다음으로 '외교 정책'(65%), '보건 의료 정책'(56%), '사회 안전 대책'(53%), '환경 정책'(49%), '복지 및 분배 정책'(49%), '교육 정책'(38%), '주거 및 부동산 정책'(34%), '일자리 및 고용 정책'(31%), '저출산, 고령화 대책'(31%) 등의 순이었다.

일자리 고용 정책,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가장 낮아

지난 4월 조사와 비교해 보면, 환경 정책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줄어든 가운데, 일자리 및 고용 정책의 하락폭이 13%포인트(44% → 31%)로 가장 컸다.

10개 주요 정책별 평가

(N=1,000, 잘하고 있다%)



02

국정지표
4) 국가 경제 인식국가경제인식지수
-40지난달 대비
1포인트 하락

국가경제에 대한 인식을 현재 상황 평가와 이후 전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뒤, 평가와 전망의 순 긍정 응답비율을 산술평균 하여 지수화(-100과 100사이의 값)하였으며, 이는 미국갤럽의 경제인식 인덱스(Gallup's U.S. Economic Confidence Index)를 참고하였다.

국가 경제 인식 지수는 -40으로 지난달(-39) 대비 1포인트 하락하였다. 5월 이후 경제 인식 지수가 하락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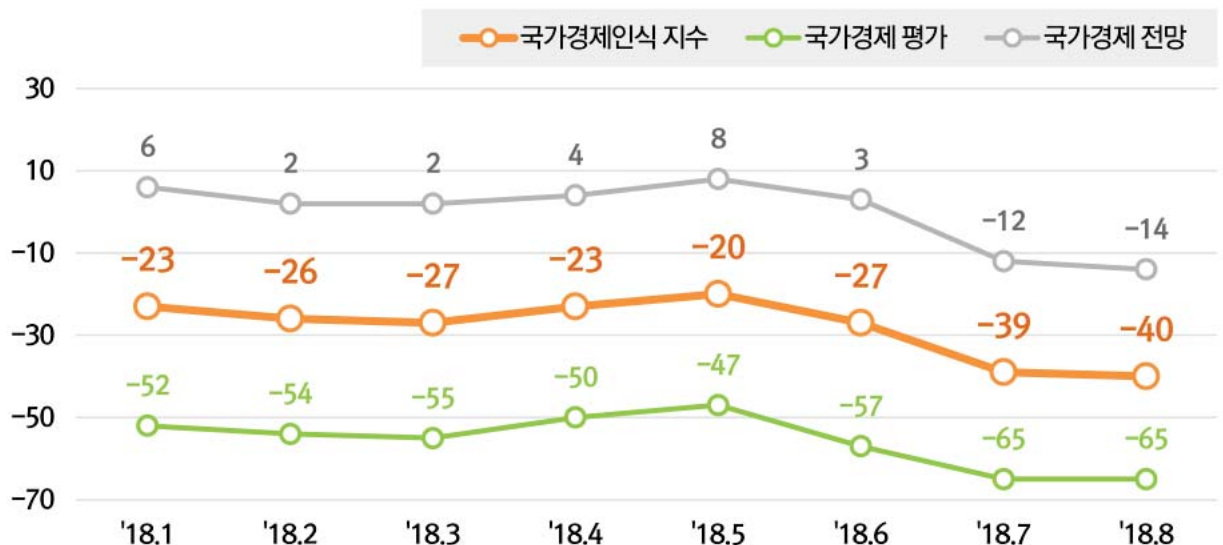
경제 인식 지수 산출 방식

(N=1,000)

우리나라 경제상황 평가	좋다 (a)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나쁘다 (b)	모르겠다	계	좋다-나쁘다 (a-b)
	5%	24%	70%	1%	100%	-65(A)
우리나라 경제상황 전망	나아질 것이다(c)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d)	모르겠다	계	나아질 것- 나빠질 것 (c-d)
	26%	32%	40%	2%	100%	-14(B)
국가경제인식(지수): A와 B의 평균						-40

국가경제 인식지수 지난달 대비 1포인트 하락

(N=1,000, 포인트)



연령대, 거주지역, 직업별 국가 '경제' 인식지수 추이

지난달 대비 20대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전월 대비
전체	-23	-26	-27	-23	-20	-27	-39	-40	-1
19-29세	-25	-16	-20	-16	-20	-27	-26	-39	-13
30-39세	-12	-20	-17	-8	-9	-19	-33	-30	+3
40-49세	-12	-13	-16	-23	-7	-11	-34	-32	+2
50-59세	-26	-29	-30	-30	-20	-36	-44	-43	+1
60세 이상	-36	-46	-45	-34	-40	-40	-52	-53	-1

지난달 대비 서울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전월 대비
전체	-23	-26	-27	-23	-20	-27	-39	-40	-1
서울	-25	-25	-28	-28	-17	-35	-35	-48	-13
인천/경기	-25	-27	-22	-20	-20	-26	-39	-34	+5
대전/세종/충청	-22	-31	-23	-22	-30	-18	-35	-41	-6
광주/전라	-4	-7	2	-1	+3	+3	-15	-20	-5
대구/경북	-32	-31	-49	-38	-33	-38	-50	-58	-8
부산/울산/경남	-22	-31	-44	-27	-23	-39	-54	-46	+8

지난달 대비 무직/퇴직/기타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전월 대비
전체	-23	-26	-27	-23	-20	-27	-39	-40	-1
자영업	-31	-35	-37	-41	-37	-32	-51	-49	+2
판매/영업/서비스	-24	-16	-23	-21	-13	-38	-32	-38	-6
생산/기능/노무	-13	-22	-12	-22	-13	-16	-39	-31	+8
사무/관리/전문	-19	-22	-15	-6	-13	-21	-38	-39	-1
주부	-32	-35	-31	-29	-24	-35	-45	-45	0
학생	-10	-11	-30	-26	-21	-31	-34	-40	-6
무직/퇴직/기타	-19	-27	-35	-26	-20	-22	-31	-39	-8

02

국정지표
5) 국가 안보 인식국가안보 인식지수
+24

경제인식 인덱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을 현재 상황 평가와 이후 전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뒤, 평가와 전망의 순 긍정 응답비율을 산술평균 하여 지수화(-100과 100사이의 값)했다.

지난달 대비
4포인트 하락

국가 안보 인식 지수는 +24으로 지난달(+28) 대비 4포인트 하락하였다. 6월 이후 안보 인식 지수가 하락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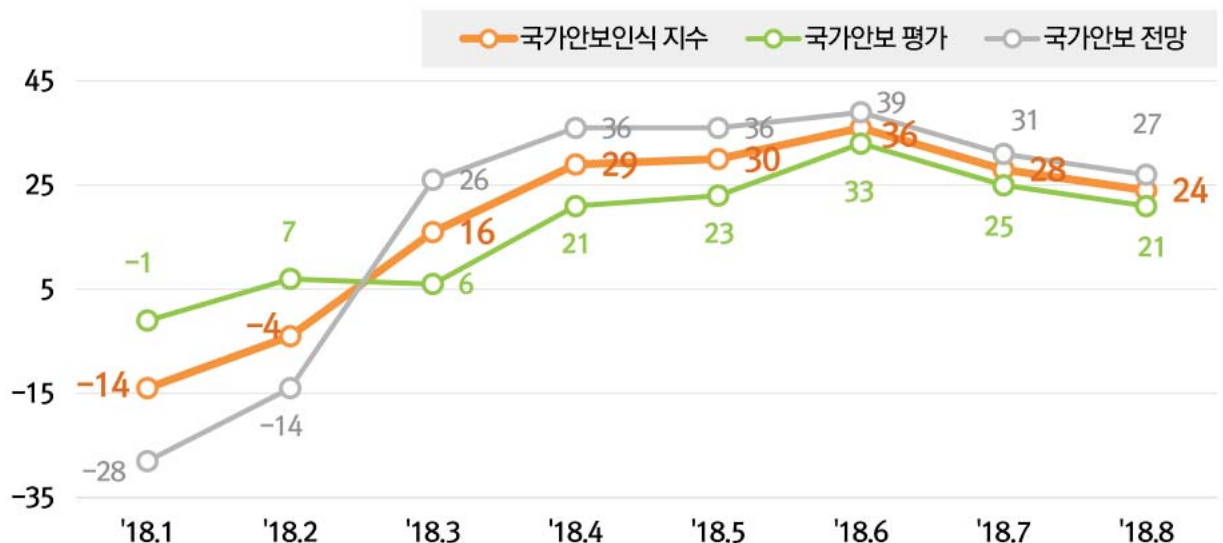
안보 인식 지수 산출 방식

(N=1,000)

우리나라 안보상황 평가	좋다 (a)	중지도 나쁘지도 않다	나쁘다 (b)	모르겠다	계	좋다-나쁘다 (a-b)
	42%	35%	21%	2%	100%	+21(A)
우리나라 안보상황 전망	나아질 것이다(c)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d)	모르겠다	계	나아질 것- 나빠질 것 (c-d)
	46%	33%	19%	2%	100%	+27(B)
국가안보인식(지수): A와 B의 평균						+24

국가안보 인식지수 지난달 대비 4포인트 하락

(N=1,000, 포인트)



연령대, 거주지역, 이념성향별 국가 '안보' 인식지수 추이

지난달 대비 30대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전월 대비
전체	-14	-4	+16	+29	+30	+36	+28	+24	-4
19-29세	-8	+10	+18	+35	+30	+28	+36	+28	-8
30-39세	+2	+9	+25	+35	+38	+33	+39	+28	-11
40-49세	+3	+10	+36	+36	+43	+58	+46	+41	-5
50-59세	-18	-1	+18	+29	+34	+40	+26	+27	+1
60세 이상	-42	-37	-9	+15	+10	+23	+1	+2	+1

지난달 대비 대전/세종/충청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전월 대비
전체	-14	-4	+16	+29	+30	+36	+28	+24	-4
서울	-24	-10	+15	+29	+31	+34	+33	+21	-12
인천/경기	-14	-3	+23	+35	+31	+38	+28	+29	+1
대전/세종/충청	-11	-13	+20	+24	+25	+35	+36	+18	-18
광주/전라	+8	+24	+42	+49	+60	+54	+52	+47	-5
대구/경북	-29	-5	-15	+8	+10	+20	+5	+12	+7
부산/울산/경남	-11	-9	+4	+23	+30	+33	+14	+19	+5

지난달 대비 중도층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전월 대비
전체	-14	-4	+16	+29	+30	+36	+28	+24	-4
진보	+16	+28	+51	+63	+63	+71	+70	+62	-8
중도	-10	-6	+11	+22	+32	+29	+27	+15	-12
보수	-52	-36	-20	-7	-11	-1	-20	-10	+10

담당자 오승호 차장

전화 | 02-3014-0167

e-mail | shoh@hrc.co.kr

여론속의
여輿論論

CHAPTER

03

조사개요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MS 패널(2018년 6월 기준 약 43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2018년 1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메일 발송 6,981명, 조사참여 1,552명, 조사완료 1,000명 (발송자 대비 14.3%, 참여자 대비 64.4%, 유효 참여자 대비 82.2%)
조사일시	• 2018년 8월 17일~20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40 YEARS Hankook Research

